

## 碩·博士學位課程의 連繫체제

金 容 權

(西江大 大學院長)

### 1. 머리말

전국 대학의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따라 대학교육의 목적을 심오하게 추구하여 학술 연구와 진리 탐구에 있어서의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입학 시험과 이수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과정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을 비롯하여 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원 규정에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이같이 분리 운영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곧 교육법('49. 12. 31)의 112조는 대학원 입학 자격을 대학, 사범대, 교육대 졸업으로 규정하고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이라고 적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15조는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시험에 통과할 때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교육법 시행령('52. 4. 23) 121조는 석사학위는 1년 이상을 수학하고 24학점을 취득하여 종합 시험에 통과하고 논문을 제출·통과하면 수여되며, 박사학위는 3년 이상 수학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합 시험에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되면 수여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

리고 대학원 규정('53. 10. 20) 가운데 입학·전학 등을 다룬 제4장 17조는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여석이 있는 한 그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업에 관한 제13조는 대학과정과의 합동 수업이 있을 때는 그 한계를 밝혀야 하되, 합동 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교육법, 시행령, 대학원 규정은 서로 상치되는 것이 있다. 교육법이 수학 연한을 2년 이상이라고 한데 반하여 시행령은 석사는 1년 이상, 박사는 3년 이상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렇다. 또 여기서 명백하지 않은 것은 박사학위과정 입학 자격이다. 다시 말해서 석사학위 1년 또는 2년을 수학한 후에 어떤 경위로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분명치 않다. 대학원 규정 17조가 규정하는대로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여석이 있을 때 동일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어떻게 진학할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또 대학원과 학부와의 공동 수업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과의 공동 수업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이수 과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치 않은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상의 법령과 규정 등이 전국 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각 대학원의 규정은 상위법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연계에 관계되는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 2. 入學試驗

대학원에 진학하는 자격에 관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일반 대학, 사범대, 교육대를 졸업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전형 방법에 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모든 대학원은 입학 시험을 통해서 전형을 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칙 42조에 입학 지원자 수가 입학 정원을 초과할 때는 선발 고사를 실시하며, 미달인 경우에도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대학원은 선발 시험 대신에 입학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입학 시험은 필기 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필기 시험은 전공 과목과 영어 및 제 2 외국어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西江大는 입학 시험에 제 2 외국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입학 후 각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 시험을 보기 전에 제 2 외국어 시험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高麗大는 대학원 학칙 6조 3항에서 석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성적, 박사과정 지원자는 석사과정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형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박사과정 지방 자격은 반드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라야 하며 석사과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공 과목과 영어 및 제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西江大의 경우 대학원 내규 22조에 ①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박사학위과정을 계속 이수하기를 지원할 때는 석사학위 취득 이전에 학과장의 추천을 받고 박사학위과정 자격 시험에 합격하거나, ② 석사학위 소지자라면 박사 학위과정 자격 시험으로 입학 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 입학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통례이다. 韓國科學技術院에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석차가 3/4 안에 들어가고 5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지망할 때는 입학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현재의 대학원 규정하에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3. 修學年限과 在學年限

수학 연한을 비롯하여 재학 연한, 이수 학점 수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각 2년으로 한 곳은 서울대와 西江大이다. 西江大는 박사과정 연한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연한이 이 속에 포함된다. 高麗大는 각각 2년과 3년으로 되어 있으며, 延世大는 최소한의 정규 등록 학기를 4학기과 6학기로 정하고 있다. 재학 연한은 서울대가 3년과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高麗大와 延世大도 각각 3년과 5년으로 되어 있다. 西江大는 3년과 8년인데 박사과정 재학 연한에는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연한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 운영의 모형이 되었을 美國 대학원의 수학 연한 및 재학 연한은 석·박사과정을 1~2년으로 잡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4~5년 안에 석·박사학위과정을 끝내도록 요구하고 있다.<sup>1)</sup> 한 가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미국 대학원협의회의 대학원교육정책위원회가 석사과정의 제 1학년과 박사과정의 제 1학년을 꼭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 두 과정에는 양적인 차이가 있으나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미국 대학원에서는 석사과정을 거쳐서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곧바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공존하고 있는 데가 적지 않다. 또 한 대학원 안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미시간대(The University of Michigan)의 대학원 요람

1) The Council of Graduate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The Master's Degree: A Policy Statement* (1981), p.8; *The Doctor of Philosophy Degree: A Policy Statement*(1980), p.7.

(Horace H. Rackham, *School of Graduate Studies*, '86~'88)을 보면 미국문화(American Culture)학과의 석사과정은 개개의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편성되며, 폭 넓은 시각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경시(de-emphasize)'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생물학과는 생물학과 식물생물학 두 분야의 석사(M.S.)과정과 생물학과 식물학의 박사과정을 두고 있는데, 석사학위는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선수 요건이 아니며 박사과정의 조건부 입학 요건도 아니라고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고전학과(Classical Studies)에서는 석사학위는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추천에 따라 박사과정에 등록한 학생에 한해서 수여된다고 되어 있다. 또 사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곧바로 박사과정으로 입학 허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해당 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석사학위를 받도록 권장된다. 미네소타 대학원 요람(*The University of Minnesota*, '86~'88)을 보면 영문학과에서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어느 쪽에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는 박사학위로 가는 도중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유망해 보이되, 자격이 충분치 않은 학생은 박사학위과정보다 석사과정을 먼저 밟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런데 박사학위 후보 학생이 석사학위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에서도 찬반의 논란이 있다.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석사학위를 얻는 것은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이기 때문에 시간의 낭비라는 생각이다. 또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일이 엄격히 요구되지 않는다면 우수한 대학원생은 곧바로 박사학위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수준 높은 석사학위 논문을 써야 한다면, 그 만큼 박사학위를 이수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석사학위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학원의 1년차 학생은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 길이 없으며, 박사과

정으로의 진학이 허가될 것인지는 적어도 2년 이상 공부한 성적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석사학위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담당교수가 학생이 2년 이상 수학을 계속할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석사학위를 위해 준비, 제출한 리포트와 시험 성적을 기초로 삼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나 논문을 집필하기 앞서 석사과정의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은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향이 있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앞에서 보았듯이 석사학위를 받지 않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허용하려면 교수들의 보다 철저하고 엄밀한 학생지도와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제도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4. 履修學點과 共用科目

전국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은 24 학점이다. 延世大 대학원은 30 학점을 최저 학점으로 요구하고 있다(제 4 장 15 조). 梨花女大는 논문세미나 3 학점을 포함하여 33 학점이다(3 장 13 조). 그리고 박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저 학점은 모든 대학원이 60 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梨花女大는 논문세미나 6 학점을 포함하여 66 학점이다(3 장 13 조). 대개의 경우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나, 자기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점 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다. 즉 30 학점을 이수한 석사가 24 학점의 석사과정을 둔 타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24 학점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36 학점을 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대학원과정에서 6학점을 더 이수하는 것이 된다.<sup>2)</sup>

2) 한국과학기술원의 석사과정은 교과목 이수에서 24 학점, 연구(논문, 세미나)에서 12 학점을 합해서 36 학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타대학원 졸업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는 교과목 학점 24 학점 중 최대 18 학점까지 인정하고 있다(학사 요람 '86~'87).

또 대학원에 따라서는 이수 학점 중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제8장 61조) 학사과정 4학년 학생은 석사과정 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학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에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석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매학기 3 학점 이내로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이 타학과 교과목인 경우에는 6 학점까지 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高麗大의 경우(제3장 13조)는 석사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 과목은 6 학점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과목의 학점을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延世大의 경우(제5장 16조)는 대학원 재학생이 대학원과 대학의 공동 개설 과목을 6 학점까지 이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사과정 재학중에 이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중 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西江大의 경우(제6장 20조) 학부 학생이 대학원 초급 과목을 이수하여 평점 3.0 이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6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의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 학점(140 학점)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의 합동 과목은 '이중수준 과목(dual-level course)'이라고도 하며, 미국 대학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수 가능한 과목수는 6 학점까지의 제한을 훨씬 웃돌고 있다. 학부 학생과 대학원 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담당교수가 리포트의 제출 회수나 기말 논문(term-paper)의 길이 등 과제물의 양과 수준을 달리해서 요구하여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공동 과목 제도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도 적용된다. 전국 대학원의 교과 과목은 모두 세 자리 수의 번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각 대학원 학과에 따라서 다르다. 100 번대에서 600 번대에 이르는 곳(建國大)과 100 번대에서 400 번대로 끝나는 곳(科技院)이 있는가 하면, 200 번대에서

500 번대로 끝나는 곳(西江大)도 있다. 또 500 번대에서 시작하여 600 번대로 끝나는 곳(東國大, 梨花女大)이 있다. 일반 대학원 과정은 800 번대까지, 의학과 박사과정은 900 번대까지로 되어 있는 곳(高麗大, 延世大)도 있다. 서울대는 500 번대에서 700 번대까지는 교과목이고, 석·박사 논문 연구에만 801, 802 의 번호가 사용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마취학과 전공 과목 가운데 타학과를 위한 교과목 3 개 과목이 901~903 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미국 대학원의 경우도 대체로 세 자리 수로 표시되어 있지만, 미네소타大처럼 5,000~8,000 번대까지 네 자리 수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번호가 다른 교과목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공동필수, 전공필수, 선택 및 연구로 세분하거나(科技院), 기초 공통 과목과 전공 과목으로 구분하는(高麗大, 東國大) 방식이 있다. 두번째는 석사과정 교과목(501~699)과 박사과정 교과목(701~899)으로 나누거나(延世大), 석사학위과정 공동 선택(501~520), 석사학위과정 전공 선택(521~599)과 박사학위과정(600 번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梨花女大). 좀더 세분해서 초급 과목(200~299), 석사학위 전용 과목(300~399),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공용 과목(400~499)과 박사학위과정 전용 과목(500~599)으로 구분하는 데도 있다(西江大).<sup>3)</sup>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은 아무런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석·박사과정은 별도의 입학 시험(선발 시험)에 의해서 구별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학원 과정(graduate studies)하에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별하고 있는 대학원에서도 상당 폭의 신축성이 있어 보인다. 석사과정 학생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박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석사과정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30 학점을 제외한 석사과정 과목을 이수하는데 있어 특별한 학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延世大).

3) 그러나 정치외교학과나 화학과 등 몇 개 학과는 석사학위 전용 과목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신문방송학과와 물리학과는 3~5개 과목을 두고 있을 뿐이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과목을 별도로 개설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많은 대학원의 경우 적어도 요람에 나타나 있는 한도에서 교과 과목이 미국 대학원에 비해서 수적으로 많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학기마다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는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각 분야별 전공 교수의 수가 훨씬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수 수의 부족과 동시에 박사과정 학생의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대학원에 따라서는 정원 조정 및 학과 자체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신입생 수를 제한하는 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에 한 명 밖에 허가하지 않는 학과도 있는 줄 안다. 한두 명 학생을 위해서 새 과목을 개설하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과정 초에서부터 개별지도(tutorial)를 하는 것은 거기에 드는 유형, 무형의 비용을 떠나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연히 전년도 또는 전학기에 들어온 학생들과 함께 수강을 하게 하더라도 그 수가 2~3명으로 그친다면, 강의나 세미나 하더라도 흥미로운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석사과정 학생들이 같은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입하는 경우 전공에 따라서는 번호만 달리 할 뿐 동일 과목을 되풀이 이수할 일이 생긴다. 이러한 일을 가급적 피하고 제한된 수의 교수진이 한둘 이상의 과목을 준비·교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들을 함께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 경우에는 학부 학생과 석사과정 학생의 합동 과목 운영에서 그랬듯이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리포트 제출 빈도수나 기말 논문의 길이 등에 차등을 두어 성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과정 학생들은 반드시 박사과정 전용 과목과 석·박사과정 공용 과목만을 이수하게 되어 있더라도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기에 따라서는 그런 과목 개설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궁여지책이기는 하나 석사과정 과목을 이수하되, 학점은 동일 내용의 상급 번호 과목명으로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런 구차한 일을 피하려면 박사학위 논문 세미나 같은 몇 개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

목을 석·박사과정 공용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것이지만, 2년 또는 3년을 한 주기로 해서 전공 과목(cluster/core majors)을 편성해서 운용하면 과정 이수가 효과적이 되리라 생각된다.

## 5. 同一專攻 및 學科·學問間 專攻

우리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의 전공은 학과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석사과정에서 필요한 24 학점 또는 30 학점은 모두 소속 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필요한 60 학점은 부전공 과목 12 학점을 포함해야 한다. 부전공은 같은 학과의 몇 개 전공 분야 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고, 타 학과의 전공 과목을 택할 수도 있다. 국문학 전공에 영문학 부전공이라든가, 생물학에서라면 유전학, 식물생리학, 생리학, 생화학, 생태학, 발생학 가운데서 전공과 부전공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전공 과목도 타학과 과목 가운데서 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어문학과에서는 대학원 문학연구방법론, 문학이론, 문학비평론 등의 과목을 학과별로 개설하고 있다. 물론 이런 과목 가운데는 국문학, 영문학, 독문학, 불문학 등의 한정사를 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학이론을 다루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각 학과마다 별도로 과목을 개설하느니 보다는 교대로 개설한다면, 학기당 개설 과목수를 더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대학의 外國文學科는 영·미 대학과는 달리 언어학과를 포용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 의미론,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등 수많은 언어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여기서도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등 특정 언어학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언어학 과목은 학과간의 조정을 통해서 교대로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학과간에도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같은 과목은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학 공학 분야에서도 전자공학과 컴퓨터과학, 정보과학간에서처럼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적지

